박원자의 母情佛心 29 혜총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조계종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어릴 적 속가에 있으면 단명한다는 이야기에 어머니가 출가를 시켰다. 11살 어린 아이였던 혜총을 품은 건 한국불교 계맥 중흥조 자운 율사였다. 율사의 품에서 큰 혜총 스님은 40년 동안 시봉하며 율사를 모셨다. 자운 율사는 혜총 스님에게 출가 생활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였다.

나를 스님으로 만든 어머니, 자운 노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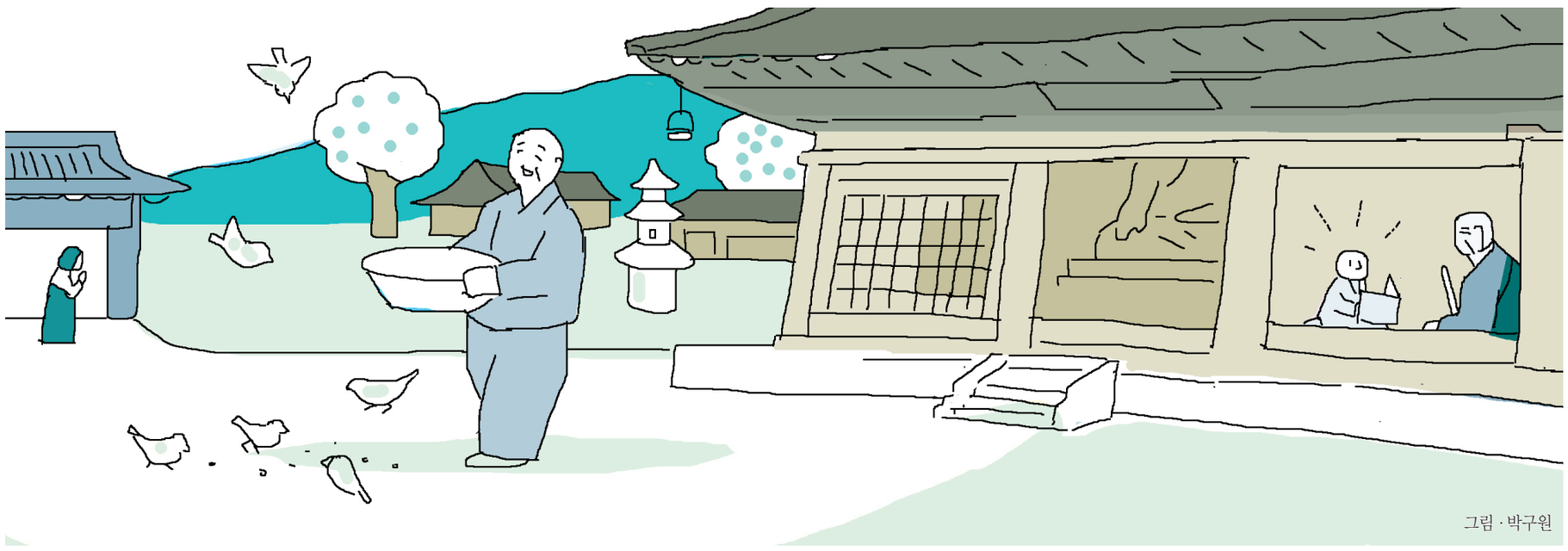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조계종 前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어머니가 두 분이다. 낳아주신 어머니와 출가자로 성장시켜준 자운 율사(1911~1993)가 그분들이다. 자운 스님은 한국불교 계맥의 중흥조로 일컬어진다.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에 출가한 조계종 출가자 가운데 스님에게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다. 종단의 전계대화상을 지내며 계단을 정비해 계율에 기반한 수행풍토를 확립시킨 뛰어난 수행자다.

마냥 뛰어 놀 나이인 초등학교 4학년 어린 소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통도사로 들어왔다. 집에 오시던 한 스님께서 속가에 살면 서른을 넘기기 어려우니 사찰에 들어가 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자운 스님에게로 간 것이다. 사정 이야기를 들은 스님께서는 사찰에 살면 명을 때우는 것은 문제없다고 하면서 어린 소년에게 잘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 은은하게 들리던 염불소리며 스님들이 푸근하게 느껴졌던 터라 잘 살 수 있다고 대답했다.

시원찮은 자식이지만 잘 길러서 단명을 면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며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경상도 충무 출신의 불심이 강한 분이었다. 원만성이라는 불명처럼 성품이 원만하고 쾌활했다. 부산에서 포목가게를 경영할 만큼 생활력도 강했다. 그 후로 3년 정도 절에 찾아오셨지만 속가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 출가생활이라고 가르쳤던 자운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연스레 멀어졌다.

그리고 자운 스님이 어머니 역할을 대신했다. 당시 자운 스님은 통도사 한주로 있었다. 어머니가 떠나고 저녁나절이 되자 자운 스님께서 3000배 참회의 절을 하라고 하셨다. 그러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년이 물었다.

"스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3천배를 하라고 하세요?"

"절을 하면 큰 복을 짓게 되어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큰 사람이 된다는 말에 솔깃해서 밤새 절을 했다. 통도사 큰법당(적멸보궁)에서 땀을 흠씬 흘리며 홀로 절을 하는 동안 스님이 문밖에서 몇 번 들여다보시는 것이 느껴졌다. 9시간이 걸린 3000배는 새벽 예불 전에 끝이 났다. 그날 아침, 자운 스님께서 가사장삼을 입혀주시고는 수계를 해준 다음 바로 보살계를 주셨다. 소년이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스님이 되러 온 게 아니고 명을 때우겠다고 왔는데 스님이 되었네요? 어렸을 때도 절에 가면 고향에 온 것 같고 법당 부처님도 좋고 염불하시는 스님들도 좋았는데, 이렇게 스님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1953년 음력 4월 15일이었다. 어느덧 70년이 흘러 여든 살이 된 혜총 스님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하룻밤 사이에 스님이 되었고 자운 스님을 시봉하게 된 거예요. 스님은 제 의견은 물어보시지도 않고 저를 당신의 맏상좌인 보경 스님을 은사로 삼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큰스님이 제게 노스님이 되었죠. 편안한 할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수계하고 난 뒤에 큰스님과 손가락을 걸며 여든 살까지만 사시라고, 그때까지 제가 모시겠다고 했죠. 그래, 고맙다 하시면서 웃으셨는데, 희한하게도 딱 약속처럼 되었어요. 여든 넘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시봉을 했으니까요."

마흔세 살의 율사 스님은 방금 수계한 명랑하고 싹싹한 11살의 사미에게 '광명진언' '발일체업장근본득생정토진언' '아미타불종자진언'을 써주면서 외우라고 했다. 진언을 외우고 나자 다음엔 〈화엄경〉 약찬게과 〈천수경〉을 외우게 했다. 노스님은 천자문을 가르치고 〈초발심자경문〉을 가르쳤다. 노스님이 선창을 하면 소년 사미가 후창을 했다. 그렇게 목소리가 닮기 시작했고, 초발심자경문을 배우면서는 봄볕에 새싹이 솟아나듯 신심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따뜻함으로 품어주시는 노스님께 부모님보다 더 깊은 정을 느꼈다. 노스님은 조어장부(調御丈夫)와 같은 분이었다. 상대방의 장점을 정확히 알아서 그 장점을 키워주고 사회에 이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로 인해 많은 스님들이 불가에 인재로 거듭날 수 있었다.

반면에 그 사람이 잘못된 점은 대중공사를 통해서 타이르고 바꿔나가게 했다. 옷매무새, 걸음걸이에 대한 세밀한 부분부터 취침시간을 잘 지킬 것과 예불, 울력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 등 출가생활에 대한 기초를 세밀하게 가르치셨다. 지적은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단 한번으로 끝냈다. 40년 동안 모시는 동안 단 한 번도 노스님이 화를 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운 스님의 하루 생활은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부처님을 예경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하루 여섯 번 행하는 육시(六時) 예불을 하셨다. 하루에 한 때 점심만 드셨고, 평생 헌식을 거르지 않으셨다. 점심을 드실 때 밥과 찬을 떠서 물을 부어놓았다가 오후 4시가 되면 염불을 한 다음 헌식돌에 올려놓았다. 언제나 정확히 그 시간 그 자리에 계셨다. 새가 날아와 그 음식을 쪼아 먹고 개미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를 것을 보면서 어린 사미는 자비심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출가란 자타(自他)가 불이(不二)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길임을 깨달았다. 그러한 수행자의 장엄한 일상이 아름다움으로 다가와 가슴에 금빛으로 스며들었다.

11살 출가한 어린 사미 보듬은
韓불교 계맥 중흥조 자운 율사
혜총 스님에겐 父母 같은 존재
40년 시봉… 자비 · 수행 배워
"스님 모신 것이 인생 모든 것"

한 번 책을 보시면 밤낮 구분이 없도록 열중하셨다. 공양 때와 울력할 때를 제외하곤 책만 보셨다. 어느 날 방청소를 해드리다 보니 책상 위에 삼국지와 수호지가 놓여있었다. 책을 들쳐보니 순한문으로 된 원서였다. 아니 왜 스님이 불경을 읽지 중국 소설책을 읽으실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이유를 물었다.

"얘야, 나는 불법에만 지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삼국지와 수호지와 같은 책에도 세상의 지혜가 다 들어있구나."

마음 속 깊이 묻고 마음 속 깊이 대답했던 그날 '성불한다고 하더라도 옛 것을 떠나지 않고 출발한 그 자리로 환지본처 하는 것이 조사들의 수행'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어린 사미는 〈화엄경〉을 읽는 노스님께 또 물었다.

"젊으셨을 때 〈화엄경〉을 다 봐서 마치셨을 텐데 왜 또 그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학인일 때 〈화엄경〉을 보는 것과 지금 〈화엄경〉을 보는 것이 다르구나."

진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인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 의아해하는 어린 사미에게 43세의 율사가 친절히 말해주었다.

"어릴 때 읽는 경과 성숙한 후에 보는 경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린 사미는 훗날 알았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뜻을 관조해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노스님이 자신의 뜻을 부처님의 뜻과 겨눠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어린 사미는 노스님을 시봉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갔다. 그러는 동안 노스님의 음성과 걸음걸이를 닮아갔다. 그러자 주위에서 다들 '제2의 자운이 나왔다' 고 했다.

"단명을 면하려고 절에 들어오셨는데 결정적으로 언제 진발심을 하셨나요?"

"자운 큰스님께서 율사이셨잖아요. 자비로우셨지만 원리원칙대로 엄격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셨어요. 큰스님께 〈초발심자경문〉을 배우고 나서 '사미율의'를 배울 때 확고부동하게 출가의 길이야 말로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구나를 알았죠. 생사를 해결해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미 단명을 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때가 고작 12살이었다는 스님께 여쭈었다.

"어머니께서도 자운 스님의 시봉을 들면서 출가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셨죠?"

"그렇죠. 자운 스님 곁에 있지 않았으면 중간에 빼갔을 거예요. 30살 때 서울에서 동국대에 다니고 있는데 찾아와서 넌지시 장가들어 가문을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제가 단호하게 지금 이 길이 좋다고 말했더니 두 말 않고 가셨어요. 신심이 깊고 참선수행도 하셨으니까 출가의 길이 얼마나 수승한 길인지 아셨겠죠. 가끔 자운 큰스님이랑 제 가사를 지어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셔서 더러 좋은 가사를 얻어 입기도 했어요. 나를 낳아 길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셨으니까 그 이상 더 큰 공양이 있겠습니까."

"11살에 출가하셔서 40여 년 동안 자운 큰스님을 모시고 출가자로 성장하셨으니까 제2의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2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이자 아버지이셨죠. 40년 세월 동안 스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살았으니까요. 통도사, 표충사, 동화사, 해인사, 감로사 서울 보국사와 보승사, 범어사에 사실 때 모시고 살았죠. 자운 큰스님을 40년 동안 모신 것 자체가 승려생활의 처음이고 중간이고 끝입니다. 입적하시고 나서 어디 주지를 하고 포교원장 등 다른 일을 한 것은 여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님을 모신 걸로 제 승려생활은 갈무리된 거죠. 그만큼 스님을 존경했고 스님이 바로 부처님이었죠."

"입적하셨을 때 무척 힘드셨겠습니다."

"입적하시기 전, 상심하면서 따라가고 싶어 하는 저에게 서방정토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할 일 다 마치고 와서 그때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혜총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은 숨바꼭질의 놀이일 뿐이라며, 삶의 수많은 길에서 우리는 항상 다시 만난다고 했던 틱낫한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이 시대 최고의 율사로 자비의 화신이었던 자운 스님의 모습이 혜총 스님의 모습에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작가〉



